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2019. 11. 1.(금)**

**PM 14:00 ~ 16:00**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 홀**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 개요

- 일 시 : 2019. 11. 1.(금) 14:00~16:00
- 장 소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 홀
- 주 최 : 충청남도의회(신청: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 주 제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참석예정 : 100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진행흐름

| 시 간                    |     | 내 용           | 비 고                  |
|------------------------|-----|---------------|----------------------|
| <b>&lt; 개 회 식 &gt;</b> |     |               |                      |
| 14:00~14:05            | 05' | 개 회 및 국 민 의 례 | 사회자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 14:05~14:10            | 05' | 인사말씀, 내빈소개 등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
| <b>&lt; 토 론 회 &gt;</b> |     |               |                      |
| ※ 좌장 :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     |               |                      |
| 14:10~14:25            | 15' | 주 제 발 표       | ·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임재광 교수 |
| 14:25~15:25            | 60' | 지 정 토 론       | · 토론자 6명(각 10분)      |
| 15:25~15:45            | 20' | 패 널 토 론       | · 패널 간 자유토론          |
| 15:45~15:55            | 10' | 청 중 토 론       | · 참여자 전체             |
| 15:55~16:00            | 05' | 정 리 및 폐 회     | · 좌 장(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

## 목 차

### ■ 주제발표

-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방안 ..... 1  
임재광(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 지정토론

- ☞ 충남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에 따른 예술인마을 조성 ... 13  
변영환(충남문화예술연대 대표)
- ☞ 사람은 있는가 ..... 19  
류중열(극단 능소 · 천안 대학로 극장 대표)
- ☞ 충남문화정책 핵심키워드생성과 충남문화예술 환경 조성의 필요성 ... 25  
오태근(충남예술총연합회 회장)
- ☞ 충남의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 29  
김월영(천안시의회 의원)
- ☞ 충청남도 문화예술현황과 발전계획 ..... 33  
권영택(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 ☞ 천안시 문화예술 시책 ..... 43  
안동순(천안시 문화관광과장)

## 충남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의정토론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도의원 한영신입니다.

무더위와 태풍도 가고 연일 쾌청한 가을 날씨에 모두  
평안하신지요?

그동안의 시름을 잊고 풍요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여유를 찾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충남도는 220만 도민이 치열한 삶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삶의  
여유를 찾아 더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예술의 현 주소를 알아보고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임재광 교수님과 토론자로 나와 주신 충남예총 오태근  
회장님, 충남예술연대 변영환 대표님, 극단능소 유중열 대표님, 김월영 천안  
시의원님, 충남도문화정책과 권영택 과장님, 천안시문화관광과 안동순  
과장님과 충남문화예술 진흥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토론회  
준비를 해주신 사무처 직원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확대를 위해서 내용도 튼실해져야 합니다. 또한  
창작을 극대화시키고자 힘쓰는 예술인과 새로 진입하는 청년예술인들의  
삶이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7명은 예술 활동 수입이 월 100만원 미만이었고, 4명 중 1명은 관련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술인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작품 하나가 온 마을을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극대화하고 예술을 즐기며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올해도 이제 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고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01일

충남도의회 의원 한 영 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 주제발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방안**

**임재광(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방안

임재광(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I. 서론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직책명 변경은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도지사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의 표현은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라 할 것이다.

오늘날 지역문화 진흥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분권과 관련하여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 대신에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책 및 사업기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한 바가 있다.

노무현정부 때 강력히 추진되던 지방분권이 이번 정부에서 더욱 확고해지도록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체부도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주요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조성,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 및 발전, 지역문화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수립하였다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역문화와 관련된 기본법과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이다. 2014년도에 제정되어 그 법을 기본으로 현재의 지역문화행정의 틀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는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하고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II.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의 현황

### 1. 지역문화진흥법

- ☐ 2014년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분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다.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 이 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예술단체나 동호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과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역문화실태조사, 협력활동 지원을 하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을 지정 할 수 있다.
-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완료되면 충남에서는 처음 선정되는 것이다. 문화도시 지정은 오는 12월 예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도시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는다.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다. 충남문화재단은 2013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충남의 문화예술계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이 빠르게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에 의해 예산을 분배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 이밖에 지역문화에 관련된 법률은 문화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다.

## 2. 지역문화진흥법의 한계

- 지역문화진흥법의 한계는 우선,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확충을 위한 정책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지자체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면 서도 실천적 방법을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국가로 하여금도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했지 ‘해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올바른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우선, 문화자치 및 분권에 맞게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리고 법안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법, 지원 특별법등 관련법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 Ⅲ.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에 의한 문화정책의 방향

### 1.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의 내용

- 정부는 지난해 ‘새문화정책준비단’을 조직해 1년 3개월여에 걸친 준비 끝에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했다.
- 내용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란 가치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과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관광 및 문화산업 종사자,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다양성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 장애,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 노동, 복지, 도시재생, 환경, 통일 분

야에서 문화가 사회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가치이자 동력이다.

-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를 기본 골격으로 47개의 대표과제와 186개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2030년까지 국가 문화비전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문화비전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실행조직 구성과 민간과의 협치 방안, 법 제도개선 및 재원조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 2.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에 담긴 지역문화 분권의 실현

-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의 ‘의제 6’에 “지역문화 분권의 실현”을 담고 있다.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양식을 보호 확산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

- 대표과제로는 다음 여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 1) 지역문화 자치를 위한 기반조성
- 2)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 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 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 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대표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역문화 자치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11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어있다. 전제된 내용은

“중앙주도 문화재정 운영은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의 비율이 상당히 낮고 문화를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팽배해 있어 단체장 임기에 맞추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과시성(문화시설이나 건물건립 등) 선심성(축제나 대형 이벤트, 행사 등) 사업에 문화예산을 집중하는 상황임.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대가 곧 문화분야 재정확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문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다.

- 2)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 발전”의 과제에는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문화재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지역문화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추진과제1,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

추진과제2,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 확산

추진과제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추진과제4, 콘텐츠산업에서 협치에 필요한 중앙과 지역, 지역 간,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추진과제5,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

추진과제6, 지역 전통문화 연구와 활용 활성화

추진과제7,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학 육성

추진과제8, 책으로 소통하는 생활(마을)공동체 구현

- 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여기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있다.

지역문화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이 인사, 조직, 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음.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지역문화 현장과 갈등 해결로 지역문화생태계를 선순환하게 하고 지역문화 현장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지역문화기관 운영과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1, 생활권에 기반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대

추진과제2, 문화기반시설 운영 혁신

추진과제3,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 강화

추진과제4,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 지원제도화 추진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추진과제3 항에서

- ▶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 지역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 제고와 투명한 운영(지자체 협력)
- ▶ 현장 소통 강화와 협치로 민관 매개 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 ▶ 지역의 문화기관/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민간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 추진과제4 항에서

- ▶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해마다 일정 비율 출연을 의무화하는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 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협치는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여 협치를 위한 조직, 협치를 위한 지원 조직 등을 상설로 운영하고, 행정 각 부서에 협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함. 협치는 관과 민의 속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를 매개로 긴 갈등 조정 시간을 견디며 상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임
- ▶ 지역문화예술인, 지역문화활동가,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견이 아래부터 상향식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함
- ▶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관이 주도하는 협치는 민이 들러리에 그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치가 필요함
- 협치가 일회성 자문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형식화되거나 관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민의 불신이 높음
-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토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후에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을 거쳐 2기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광역과 기초까지 확대하여 문화분권의 주요 기구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음

#### 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 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IV.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20 문화예술 트렌드분석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0대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9번째로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를 제시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선언하며 지방분권 의지를 피력하였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개헌을

위해 선행돼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되어 불가능해졌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용이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 정부 자치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화하여 기관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와 이해에 충실함으로써 애항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존하는 지역 간 격차가, 지방분권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이며, 특히 지방정부간 지나친 경쟁이 지방정부의 지출 및 적자재정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 문화 분권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실행주체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화분권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성공요건을 갖추었다 평가를 받았다. 지역의 문화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천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문화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이후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서도 지역으로의 문화 분권을 실현하여 중앙은 지역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재정적으로도, 2018년 예산안부터,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주민 밀착형 지역사업 및 지역행사 등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과 역량이 달라, 권한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는 문화 분권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문화 분권이 진행 될수록 지역 간문화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3.8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 분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지역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도가 이어져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 위 보고서에 7번째로 언급된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의 내용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는 문화예술의 관여가 필수적이다.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구도심은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술가들의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예술가가 주도하는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젠트리파이어로 인식 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를 매개로 예술가가 유입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도 장소애착을 형성하여, 밀려난 이후에도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인접지역에서 머물며 공간적으로 분화하고 확장하는 유인이 된다. 또한 예술 씬을 형성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활동하는데, 창작활동을 매개로 예술씬이 형성된 경우, 상업화에 의해 초기의 활동공간이 소실되어도, 새로운공간을 개발하여 그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예술가의 역할은 지역 활성화의 구도 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유의 미감과 개성으로 도심 낙후지역, 유희공간 등의 저평가 지역에서 극적인 경관변화를 연출하면서, 주민과 상권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사례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과 예술가를 활용한 적극적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공간이나 공연, 전시공간 등을 제공하여 예술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촌을 조성하여 예술가의 정주를 유도하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개척자로서,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촉발하는 슈퍼젠트리피케이션을 기대하여,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예술가들을 유입시키는 경우, 활성화에 앞서 오히려 장소성 혼란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의도된 문화 과잉으로 이러한 장소성이 과거와 단절되어 일순간 바뀌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 V. 문제제기와 제언

- 지난 정부들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문화정책이 각 정부의 문화정책을 관통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 강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생활속 문화 확산, 국민의 주체적인 문화 참여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여가 확대 등도 각 정부의 문화정책을 관통하며 유지되고 있다.
-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쇠퇴와 지역문화자산 소실에 대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쇠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쇠퇴지역에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하던 차원이 아니라 기반시설축소, 도시서비스 공급 조정, 공원녹



지 확충, 공가(公家) 정비 등 감소된 인구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2014년 기준으로 79개 시군구가 소멸될 위험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이상호, 2016). 지역 소멸은 단지 행정단위가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이 소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현재 지자체의 문화예술에 대한 상황은 정책은 없고 행정만 있다. 지자체에서도 중앙에서 만든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이 되어 만드는 자발적이고 고유한 문화예술 정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지역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이 행정부서로부터 정책결정의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구성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단 스스로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 생활문화가 강조되면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는 적극적으로 지원되는데 비해 순수예술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아마추어 동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순수전문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같이 취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술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것이 지역문화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준 높은 전문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충남도내에는 문예회관 등의 복합문화공간은 포화 상태이면서 미술관이나 전문공연장 등 특화된 기관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미술관이 설립되면 전시공간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복합문화공간에 부속물로 있는 전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미술관, 연극전용극장, 무용공연장 등 장르별로 전문화된 공간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 현재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들에서 제공하는 공간과 시설 지원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전문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시설 등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 서울에서 혹은 외국유학에서 돌아와 귀향한 젊은 예술가들이 늘어나

고 있다 이들이 고향에서 정착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절정의 예술가 한명이 한 지역을 먹여 살리는 수도 있다.

- 예술인복지재단 등 정부차원의 예술인 복지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원로 예술인들의 복지는 사각지대이다. 충남도의 복지정책은 양승조 도지사의 전문성에 힘입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없다. 예술인들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인 도시재생 사업에 문화예술계가 적극 참여해야한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건축행위가 아니다. 본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예술이 함께 복원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다.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같이 복원되어야 가치 있는 재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예술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문화산업의 개념을 지역 문화예술계와 공유해야 한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추진 방향이 좀 더 지역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의 정서에 맞게 사용하는 용어도 쉬운 말로 쓰고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지역문화를 산업적 차원으로 끌어 올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 지정토론

**충남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에 따른  
예술인마을 조성**

**변영환(충남문화예술연대 대표)**



# 충남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방안에 따른 예술인마을 조성

충남문화예술연대 대표

미술작가 변영환

##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작금을 막론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언설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말이다.

이미 우리의 생활이 문화 향유권 예술 창작의 자유로움이 보장 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문화 예술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때 인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인간 삶을 질적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분야이기 때문 일 것이다.

이에 우리의 생활이 의식주 해결 이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문화예술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충남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문화예술인 입장에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본론

이미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지역문화예술진흥법, 문화 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선언과 그에 따른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제 실질적 구체적 실행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여기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충남 문화예술인 마을 즉 예술인 공동체를 제안하는 바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술인 마을이 있다. 파주 헤이리 마을 구례예술인마을. 양평 예술인마을, 정릉예술인마을, 우이예술인마을 등 다수가 있다.

## 3. 예술인 마을 조성의 효과

- 1)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면 그곳은 상시 공연장, 박물관, 전시장 등에서 예술행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감상할 만한 예술을 접할 수 있으며 만나고 싶은 예술가들은 또한 만날 수 있는 예술의 일상적 소통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곳이다.

- 2) 마을이 활성화 되면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3) 공동화된 구도심의 활성화의 동력으로 예술인들을 유치할 경우. 예술가들은 그들의 감성과 구성력으로 폐허화된 지역을 예술작품으로 변화를 연출하여 주민과 상권을 단기간에 변화 시킬 수 있다.
- 4) 예술가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의 영감을 주고받으며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다.
- 5) 이곳에서 예술인들에 의한 예술교육이 이루어져 일반교육이나 전문예술인 양성 교육을 활성화 시킨다.

4.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을 공연무대, 소극장, 전시장 등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이후의 상설매장을 조성하여 유통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작가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

## 5. 장소-부지선정

- 1) 공동화 된 구도심, 폐 산업 공장지대, 또는 폐교 등을 활성화하고 재탄생시키는 일로 그곳에 예술인들을 상주하게 함으로서 적극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거나
- 2) 처음부터 유희 시유지를 부지로 기본 시설을 투자하여 예술인을 유치시킨다.

## 6. 예술가들이 입주

- 1) 장소가 정해지면 예술가들의 입주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작가들이 개인적으로 임대료 등 모든 것을 부담하는 방법은 열악한 예술인 환경에서 현실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지자체의 배려나 도움은 필수적이다.
- 2) 지자체가 주도하며 저리 용자나 장기 임대인 경우 희망하는 예술가들의 조건과 자격은 상황과 현실에 맞는 합리적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입주와 지원은 파격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3) 창작공간이나 주거시설 등 입주 작가들에 대한 기본적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4)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주 예술가들의 마음가짐이다. 예술인마을이 공동체 창작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치열한 창작의식과 활동으로 예술 마을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야말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예술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함이다.

## 7.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

- 1) 예술마을을 주시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그곳에 가면 감동적인 예술품, 그리고 그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가들과의 만남이 방문의 중요한 요인인데,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은 이미 그들의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이 과연 입주하여 예술인마을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해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 2)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투기성 자본의 유입으로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예술마을의 사례 중 파주의 헤이리 마을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름이 예술인마을이지 사실은 부유한 예술애호가들의 집단거류지이다.
- 3) 마을 형성 이후 활성화되어 지역의 명소이며 유명관광지로 발전하게 되면 지가상승, 임대료상승으로 기존의 예술인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창작공간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예술가들이 이제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이르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거론되어야 한다.
- 4) 그리고 문화예술에 있어서 예술가의 위치와 역할은 시초적이며 절대적이라 생각한다.

충남예술의 인프라는 많이 형성되어 있다. 동호인 애호가 콜렉터 등. 그러나 정작 예술가의 환경과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담론이 없다. 머리는 없고 거대한 몸통과 꼬리만이 이야기 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술가의 삶이 힘들면 예술작품이 나올 수 없다. 예술마을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적 생활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술인들이 생활할 수 없는 예술마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8. 맺는 말

충남의 예술은 그 어느 곳 못지않게 뚜렷한 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충절문화 호국역사도 그 일부 일 것이고 또 안견, 추사 김정희를 비롯하여 판소리 박동진 고암 이용로 등 수 많은 걸출한 예술인을 배출한 고장이다. 현역예술가로서 많은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충남의 예술은 타 시도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함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서두르되 사전의 철저한 기획과 분석으로 형식적이거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실행하여 예술인 마을을 통해 충남예술의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기를 바래본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 지정토론

**사람은 있는가**

**류중열(극단 능소·천안 대학로 극장 대표)**



# 사람은 있는가

류중열(연출가, 천안 대학로극장대표)

오늘 토론의 발제 원고의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진흥, 문화체육 부지사, 기반조성, 지역문화의 고유성, 운영혁신, 협치, 협력체계 구축, 주민의 삶의 향상, 예산 분배와 집행, 자율성, 도시재생, 퇴직 공무원, 도시빈민가”** 등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지금 우리 지역예술계는 정부로 부터 대단히 좋은 양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풍성한 대우가 넘쳐나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하며, 적절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즐거운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 같다.

허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어렵고 낙후된 여건 속에서 힘겨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 3, 3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 첫째는 사람이다.

전문예술가, 비전문예술가(생활예술), 향유자인 시민(관객)이 있다.

충남에 전공예술가가 몇 명이나 있으며 그 실태 파악과 그들의 예술활동을 기록, 조사한 데이터베이스는 있는지, 어느 기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 알고 싶다.

그러면 비예술전문가의 현황은 어떠한가?

아직 초보 단계의 예술지망생인가? 취미나 여가선용으로 활동 하는가?

시민들은 어떤 형태로 문화예술의 영역에 접근하고 즐기고 있는가?

그들이 바라고 선호하는 문화예술은 어떤 장르이고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낸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두번째는 공간이다.

무대예술의 결과물은 공연장에서 보여 진다.

전시행정적인 대형공연장과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행정적 자리배치로 멀리 외떨어진 극장은 관객의 외면을 받을 뿐이다.

예술가들의 교실인 연습공간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시청, 구청, 동회, 각종 관립회관 등은 많이 있는데, 관리비와 유지비를 내면서 이용도와 사용횟수는 통계가 나와 있으며, 예술인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과 교육 장소는 몇 군데나 있는지 알 수가 없다(예술회관의 필요성)

## 세 번째는 문화 도우미다(정책).

충남도나 시, 군(기초단위포함)당국, 문화재단은 예술인과 문화예술 진흥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술진흥 정책을 실행 하는지 알고 싶다.

충남의 많은 기업들은 메세나 제도는 알고 있으며, 예술단은 몇 개나 운영되는지? 대기업의 큰 공장들(대형마트)은 제품을 만들면서 공해만 발생시키고 물건을 팔아 충남기업인들의 경제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이익금만 챙기면서 시민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기여를 하는가?

또한 각종 시민들의 동호회나 후원회는 예술진흥에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하는지?

## 나가며

첫 번째로 지역예술가를 살리자.

충남도엔 지역예술가를 위한 어떠한 제도도 없으며, 그들의 활동과 생존에 무관심하다.

각종 행사나 축제는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 그리고 서울의 대형기획사에게 의존한다.

우리의 세금을 고스란히 헌납하는 꼴이다.

최근에 시행된 “윤봉길의 워치”나 “천안 흥타령 춤 축제”, “심훈상록수 축제”, “성웅이순신축제”, “여걸 소서노”, 그리고 다른 소규모축제도 대동소이하다.

“윤봉길의 워치”엔 충남과 예산이 없고 “천안 흥타령 춤 축제”엔 가수가 먼저이고, “심훈 상록수축제”에 문학이 안 보이며, “성웅이순신축제”에는 이순신이 왜소하다.

청년예술인과 신생새내기 단체 지원에 어떠한 잣대가 있는지 타당성 있는 심사 규정과 공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미술관 건립이 확정 되었으니, 이제는 도립극단 창단이 다음 순서이다 왜냐하면 연극은 모든 예술을 아우르는 기본 예술이며, 충남연극이 전국에서 가장 뒤쳐진 분야이기도 하다.

두 번째 공연장의 확대이다.

천안시의 경우 예술의전당은 멀고 관람료가 비싸며 문예회관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허나 아주 손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강당을 개방하고 간단한 조명시설을 하면, 공연장으로 발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학교강당, 도서관, 종교시설, 회관, 공원, 마당, 운동장 등이 그 대상일 것이다.

독립기념관처럼 지역인에게 감면 혜택을 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진흥정책이다(복지재단, 예술 춘).

시(군 지자체)는 행사나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문예술가에게도 관심을 갖자. 예술가는 대를 이어서 할 수 없으며 기술과 자본을 물려 줄 수도 없다. 오로지 그들의 열정과 장인정신, 능력을 예술의 혼을 담아 관객-시민-과 후배들에게 물려 줄 뿐이다.

도나 시가 관심을 가지면 기업이 따라 올 것이며, 점차적으로 자연스레 시민들이 참여 하는 후원회나, 예술동인들이 탄생할 것이다.

(시립단체 예산의 편중, 비대)

네 번째로

무엇보다 급한 것은 예술자문단(예술 감독)의 운영이다

도나 시에서 우선 시행하며, 문화재단 그리고 각종 행사, 축제에 적용하면, 예술 행정의 독선과 그들만의 리그에 제동이 걸리며 낙하산인사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 (체육행사, 구도심 살리기)

관은 예산과 결산 과정에 참여하되, 문화예술은 전문가의 영역이기에 간섭하지 말고 그들에게 맡기어야 한다.

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술가는 아니며 예술진흥에는 예술가가 필히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 지정토론

**충남문화정책 핵심키워드생성과  
충남문화예술 환경 조성의 필요성**

**오태근(충남예술총연합회 회장)**





# 충남문화정책 핵심키워드생성과 충남문화예술 환경 조성의 필요성

토론자 : 충남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오태근

## 1.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앞서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은 지역문화 진흥법의 관련 법률이나 문화 비전2030에 관한 내용 또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결과 일부발췌와 대통령의 간담회 내용 중 지방문화 분권에 관한 발언 등을 골자로 충남의 문화정책 방향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국가의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충청남도의 문화정책이 설계되어야 하지만 사업별 문화계획은 건건이 발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미래까지 설계된 핵심 키워드는 많은 문화예술인은 물론이고, 도민들의 뇌리에 각인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부지사를 임명하였고, 도지사 문화정책 특보까지 선임한 이 시점에서는 두루뭉술한 어휘보다는 기억에 남는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을 공공성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가?

충청남도는 양승조 도지사님 취임이후 충남도립미술관 설립과 도청 내 작은 미술관 개관, 충남관광공사 설립 등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포함한 많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공간과 기관설립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과 그것을 담당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합당한 대우,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와 복지까지 제시해주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과감하게 선언하시길 권해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 지정토론

**충남의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김월영(천안시의회 의원)**



## 충남의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김월영(천안시의회 의원)

안녕하세요.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의원입니다.

문화정책은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으로,  
하나의 단일 문화사업보다는 문화와 연결된 모든 정책들  
상호간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야에서 문화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자료를 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난해 공모 사업 중 서울·경기 지역에서 79.6%가 선정됐고, 1,184억원 가운데 800억여 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되었고, 2019년 올해는 공모 사업의 수도권 선정 비율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81%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반면 충남을 비롯한 광주·대구·충북의 지난해 공모 사업 선정 비율은 건수 기준 2~3%에 그쳤다고 합니다.

문화예술위 공모 사업에서도 지방 소외는 심각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지난해 총 2,683건의 공모 사업 가운데 71.9%가 서울·경기에 배당됐고, 전체 지원 금액 600억 원 가운데 370억 원이 두 지역에 집중되었고,

2019년 올해도 68% 넘게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이며, 충남과 전남·경북 등은 1%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연극도 지방에서 소공연장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수도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변화가 없다면, 지역 문화는 더욱 침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 지역별 고른 안배가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산업은 무한의 잠재력을 지닌 성장산업이자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의 전통과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충남을 문화특별 권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천안이 지난 10월 21일 충청남도과 천안시가 도내 첫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업무 협약을 통해 천안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지정된 도시를 말하며, 천안시는 지난해 예비도시로 선정된 만큼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를 통해 연말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면, 2020년부터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천안’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안시도 천안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아울러 시민의 문화적 삶의 확산을 통해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천안시의회에서도 소관부서, 천안문화재단,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천안시 시민, 더 나아가서는 충청남도의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가 충남 문화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 지정토론

### **충남도 문화예술현황과 발전계획**

**권영택(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 충남도 문화예술현황과 발전계획

권영택(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 I. 머리말

우리의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이 3만600달러)이 향상되며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면서 도민들의 의식향상과 문화향유(enjoying cult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면, **문화향유(복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조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정책 사업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소득, 사회적 약자, 지리적인 거리 및 특수한 상황에 의해 문화 향유와 참여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둘째는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도서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사업의 토대인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문화이용권 지급 등 문화권(cultural right) 보장 등 다양한 사업을 나열할 수 있다.

우리 도에서도 문화예술 발전과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도지사의 문화정책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 II. 현황 및 문제점.

그러나 우리도 문화예술분야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금년도 충남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총 208억원이며 그중 도비는 129억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비 1,020억원, 충북은 183억원, 전북 330억원, 경북 381억원,

경남 236억원, 전남 318억원 등으로 우리 도 예산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2018문예연감’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충남지역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1,026건으로 2016년 951건 대비 7.9% 상향되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하위권**이고 인구 **10만명당 문화예술활동 건수**도 전국 평균 66.4건에 못 미치는 45.4명으로 **12위로** 나타났다.

문화시설분야인 **문화예술 기반시설 시설수**는 149개소로 17개시도 중 **7위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도 75.4%로 전국평균 79.3%에 3.9%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시설 인프라는 중위권을 보이나 운영(활동)지수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과 문화시설 공간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문화향유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미흡과 지역, 젠더, 교육, 소득 수준이 고려된 문화프로그램 공급 부족 및 문화예술의 향유 체험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도민을 배려한 세밀한 문화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결국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예술 공연활동 등이 낮고 문화시설 기반부족으로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Ⅲ. 분야별 사업 추진상황

2019년은 민선7기 도정비전과 공약 사항 이행 등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문화정책 사업을 분야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을 통한‘더 행복한 삶’만들기입니다. 도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윤봉길 뮤지컬 제작하고 공연(7회)를 실시하여 4,170명이 관람(관람율 85%)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등 활성화 노력을 위하여 도청사 내‘작은미술관’을 운영하여 60작품을 연중 전시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66회), 찾아가는 樂樂공연(20회)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누리 카드를 60,871명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출발하여 조례 제정,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배달 등 시행중에 있습니다.

#### < '19년 문화예술 주요사업 >

- **윤봉길의사 창작 뮤지컬 제작 공연(도 대표 브랜드 육성)**
  - 총 사업비 10억원(국 5, 도 2.5, 군 2.5), 충남도·국가 대표 공연물 제작
  - 서울 공연 5회(국립박물관 ‘龍’), 내포 및 예산 공연 2회 등
- **각종 문화예술공연 확대**
  - 내포공연활성화사업 : 내포신도시, 예산군, 홍성군에서 9회 공연 개최
  - 찾아가는 버스킹 : 13개 시군(태안군, 당진시 제외), 66회 개최
  - 찾아가는 樂樂공연 : 15개 지역, 20회 개최
- **도 청사 내, ‘작은 미술관’ 운영**
  - 예술인복지 및 문화향유 목적, 분기별 30작품 전시(30만원/월 임차료 지급)
- **4개 공립예술단 운영**
  - 찾아가는 공연 및 강습 : 총 401회(공연 296회, 강습 105회)
- **도내 문화예술교육사업 출발**
  - 5개년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19.1.) : 2019~2023, 3개 목표 21개 과제
  -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배달 등 시행

둘째,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운영으로 도민의 여가 활용 공간 제공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천안독립기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가칭)3.1운동 충남 백년의 집(총437억원, '23. 3월 예정)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 미술문화 발전과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도립미술관 건립(총462억원 '23. 11월 예정)을 철저히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유희시설 및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확대로 생활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8개소, 서천장항·논산시립 도서관(5월개관), 공주기적의 도서관(연말예정)등 지역별·권역별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제공 운영 중에 있습니다.

< '19년 문화시설 주요사업 >

- 지역 대표 「도립미술관」 건립(462억원- 예비비 및 토지매입비 제외)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19. 9. 27.)
  - \* 규모 : 연면적 12,720.47㎡, 지하2/지상2
- 「<sup>(가칭)</sup>3.1운동 충남 백년의 집」건립(437억원, '23. 3. 1. 개관 목표)
  - 건립계획 발표 및 독립기념관 업무협약 체결('19. 3.1절 100주년행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19.7.6.)
  - \* 규모 : 연면적 8,176㎡(교육동 5,738 / 연수동 2,438), 지하1/지상3
- 시군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 서천장항.논산시립도서관('19. 5.개관), 공주시적의도서관('19. 연말 완공예정)
  - 태안동학혁명기념관, 천안유관순열사기념관('20. 완공예정)
- 문화시설 현황 : 466개(도서관, 문예회관, 미술관 등)
  - 문학관 11, 박물관 48, 미술관 9, 도서관 62, 작은도서관 302, 문예회관 19, 문화원 15

셋째, 4차산업 시대 도래와 함께 첨단문화산업 육성과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선 천안아산 KTX역 인근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개소하여 콘텐츠기업 14개소가 입주하여 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이어질수 있는 충남콘텐츠코리아 랩을 운영하여 594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게임산업 강화를 위해 올 초에는 충남글로벌게임센터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촬영유치 28건, 전국영상인 대상 팸투어 3회를 추진하여 지역의 숨은 명소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충남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19년 문화산업 주요사업 >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19. 4. 25)개소
  - 콘텐츠기업 총14개사(관외7, 관내7) 입주, 일자리 36명 창출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유치('19. 1.)
  - 국 내·외 게임기업 발굴·유 치·창업지원 등
- 충남영상위원회 운영(영상산업 활성화)
  - 촬영유치 28건, 팸투어 3회,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 5건
- 「콘텐츠코리아랩」운영 : 인력 양성 594명, 콘텐츠개발 10건, 창업지원 28건 등
- 문화특화지역 조성운영 : 3개시군(천안시, 서산시, 홍성군)
  - ※ 문체부 문화도시 선정(천안시 예비지역으로 선정)
- ICT 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 지역 대표문화 콘텐츠 창출 등

#### IV. 충남문화재단은

우리도는 2013년말 (재)충남문화재단을 지역문화의 거점기관으로 설립하여 예술로 꽃피우는 행복한 문화충남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일선에서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 금년 예산은 총 120억원으로 그중 도비는 54억원이며 인력은 2부 5팀 정원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시도  
현 황**

- 충북문화재단 1처 5팀 정원 20명
- 전북문화관광재단 1처 1부 6팀 1단 정원 63명
- 전남문화관광재단 1처 7팀 1사무국 정원 35명
- 강원문화재단 1사무처 3실, 1연구소 5팀, 1사무국 2팀 정원86명

'19년 현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무지개다리사업, 종고제 맥잇기, 보부상 장마당놀이, 기부금품 모집사업(컬-프렌드), 찾아가는 공연,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문화재단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 전문조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 창작생태계와 협력거버넌스 구축, 특색있는 융복합 문화예술 형성,

창의적인 재단 운영기반 구축, 도민 문화인식과 문화예술교육확대 등 추진전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장애인문화예술교육 배달,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등 신규사업 7건을 발굴하는 등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질책과 비난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 V. 앞으로(2020년 추진방향)

2020년에는 ‘문화로 행복한 도민, 살맛나는 충남’이라는 비전과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80%, 문화시설 전국6위, 예술활동 지수 전국 10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5대과제에 역점에 두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로 도민의 행복도 제고입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동호회(86개 단체)를 선정하고 생활문화 축제를 개최와 주민자치센터에 전문예술강사 파견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지역 계층의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을 82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확대로 도민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도민 문화예술 브랜드 개발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및 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매헌 윤봉길 의사의 뮤지컬 공연을 민간기업 투자유치(1억이상)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동있고 전통있는 문화예술 향유로 활력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공립예술단, 오지 등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보부상 장마당 놀이 시군 순회공연 등을 통하여 문화소외 지역 시군 순회공연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전 도민의 균형 있는 문화예술 향유로 소속감.연대감을 제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운영으로 도민의 여가 활용 공간 제공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이자 문화예술향유 중심 공간으로 활용 될 도립미술관 건립입니다. 공급자 중심인 기존의 방식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예술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도민 및 지역 미술인과 연계하는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건립예정으로 총462억 사업비를 들여 전시실, 어린이 갤러리, 강의실 5실, 세미나실 1실, 스튜디오실, 교육·체험 공간 등 편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민 참여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21세기형 열린 미술관'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역사 교육 공간인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을 행정절차에 따라 건립(437억, '23.3목표)할 예정이며 태안동학혁명기념관, 천안유관순열사 기념관 등 시군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문화예술 정보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 시군, 단체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문화 캘린더), 문화공간이용(대관서비스)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를 매년 50명이상 확대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역량을 강화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전문 인력인 문화사무장(시군별1명)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도민 문화향유를 실태조사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15개 시군민의 문화향유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분석하여 문화격차해소로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년'충남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제정과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기반 고도화 등 을 담은'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9~2023)'및'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2019~2023)'을 수립하고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내「초.중.고」대상 교육실시로 예비문화예술인 육성기반 마련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으로 기존 사업을 보완 및 개선 발전적 추진하여 도민의 삶 속에서 행복을 키워주는 충남문화예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 V. 마치며

충남도에서는 문화 기초 강화, 문화의 일상화, 생활문화의 거점 확충, 기초 문화 생활 보장 등을 통한 문화 관람률 80%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문화강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가치가 되도록 소외지역 및 계층을 포함한 도민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향유(enjoying culture) 기회 확대를 도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 지정토론

## 천안시 문화예술 시책

안동준(천안시 문화관광과장)



# 천안시 문화예술 시책

안동순(천안시 문화관광과장)

## I. 문화예술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천안시 일반회계 | 문화예술분야 | 비 율  |
|-------|----------|--------|------|
| 2019년 | 17,140   | 599    | 3.5% |

## II. 문화기반시설 현황

### 1. 공연장 현황

| 총 계  | 천 안 시 (문화재단 포함) |      |      | 충청남도교육청 |      |      | 민간시설<br>공 연 장 |
|------|-----------------|------|------|---------|------|------|---------------|
|      | 소 계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소 계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
| 14 개 | 8               | 4    | 4    | 2       | 1    | 1    | 4             |

### 2. 전시공간 현황

| 총 계  | 미 술 관 |     |     | 전시공간(갤러리) |     |     |
|------|-------|-----|-----|-----------|-----|-----|
|      | 소 계   | 공 공 | 사 립 | 소 계       | 공 공 | 사 설 |
| 22 개 | 2     | 1   | 1   | 20        | 6   | 14  |

### 3. 도서관 현황

| 계    | 공공 도서관 (운영주체별) |     |     | 작은도서관 |
|------|----------------|-----|-----|-------|
|      | 소 계            | 천안시 | 교육청 |       |
| 27 개 | 12             | 9   | 3   | 15    |

### 4. 박물관 현황

| 계   | 공립 박물관 | 사립 박물관 | 대학교 박물관 |
|-----|--------|--------|---------|
| 8 개 | 4      | 3      | 1       |

### Ⅲ. 지역문화 거점기관 현황

- 천안문화재단
- 지방문화원 : 2개소(동남구문화원, 서북구문화원)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음악창작소운영, 창작 스튜디오, 창조문화활동지원 등
-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 Ⅳ. 2019년 주요 추진사업

#### 1. 문화산업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 문화창업 지원 등
- 음악창작활동 지원
  - 음반 제작(녹음실, 편집실, 연습실 등 운영), 유통, 저작권 등
  - 공연활동 지원(공연단체 육성 등)
  - 음악산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창작스튜디오 운영
  - 창작공간(작가 입주실 등) 운영
  - 창작&웹툰 아카데미 및 우수작품 발굴 지원 등
- 창조 문화산업 지원
  - 원도심일대 공방거리 조성 및 입주 지원
  - 전시, 박람회 등 참가지원 및 홍보마케팅

#### 2. 문화예술활동

- 매주 상설공연 : 토요상설무대
- 매월 정기공연 : 문화가 있는 날(행복콘서트, 11시콘서트)
- 시립예술단 공연 : 정기공연, 찾아가는 예술공연(복지시설 등)
- 동네방네 콘서트 : 마을, 공원, 전통시장 등
- 공연활동 지원 : 국제 짜즈공연, 국제 현대무용콩쿠르, 공원음악회, 가요제 등
- 민간문화예술지원 : 공연99팀, 전시79단체, 문학17, 기타12단체
- 전시지원 : 중견 및 원로작가 등 기획전시, 에바 알머슨 등 특별전, 후원 전시 등
- 기타 행사지원 : 예술제, 생활예술박람회 등

#### IV. 2020년 추진계획

##### 1. 문화기반시설 확충(신규)

- 신안동 문예회관 건립, 도서관 건립(2개소)

##### 2. 문화도시 지정 추진

- 기 간 : 2020년 ~ 2014(5년간)
- 사업비 : 200억원

##### 3. 공원음악회 확대운영 : 2개소 ⇒ 4개소 이상

##### 4. 지역 예술인 활동지원 확대

## M·E·M·O



## M·E·M·O



## M·E·M·O

